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이수형\*

〈차례〉

1. 머리말
2. 상실에 대한 주체적 반응으로서의 애도
3. 오빠의 상실이 지닌 상징적 의미
4. 상실에 대한 죄의식, 상실과 함께 머물기
5. 맺음말

〈국문초록〉

6·25와 관련된 박완서 소설에 오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자주 형상화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쓰는 행위에 내포된 의미에 주목했으나 본고에서는 오빠의 죽음 자체가 갖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박완서 소설에서 오빠의 위치는 상징적 동일시의 모델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그러한 오빠의 죽음이 주체에게 상실감을 넘어 일종의 죄의식을 유발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6·25를 다룬 다른 작가들의 소설과 박완서 소설을 비교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했다. 동일시의 모델로서의 아버지는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상징적 법의 작인이며, 박완서 소설에서 그 자리는 오빠에게 위임된다. 사적 이해관계에 지배되는 현실의 아버지와 달리 상징적 아버지는 보편적 가치를 지탱할 수 있다. 현실적 존재로서의 오빠와 상징적 동일시의 모델로서의

\* 홍익대 국어교육과 강사

오빠 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방 이후 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 중의 이데올로기 대립 과정에서 실패를 겪고 방황하던 오빠의 상징적 권위는 거의 붕괴된다. 이러한 오빠에 반발하여 스스로 이데올로기적 가치와의 동일시를 수행하려 했던 '나' 역시 오빠와 비슷한 좌절 상태에 이른다. 오빠의 죽음은 오빠에게 위임되었던 상징적 권위와 보편적 가치의 상실이며, 나아가 오빠와의 동일시를 통해 '나'가 지향했던 상징적 가치의 상실을 의미한다.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자가 먼저 죽은 자에게 죄의식을 갖는 것은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나'가 오빠의 죽음에 죄의식을 느끼고 또 그 때문에 끝내 애도를 종결할 수 없었던 것은 오빠의 죽음이 대표하는 어떤 상실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의 상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상실 그 자체를 자신의 일부로 구성했으므로 결코 애도를 종결할 수 없는 주체의 사례를 보여 준다. 이처럼 보편적 가치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죄스러워하고 그 상실감과 함께 머물며 애도를 끝내지 않는 주체를 통해, 6·25와 관련된 작품뿐 아니라 박완서 소설 전반에 걸쳐 사적 이해관계와 세속적 욕망에 지배되는 현실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견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어: 애도, 죄의식, 상실과 함께 머물기, 상징적 권위, 동일시

## 1. 머리말

마흔의 나이로 뒤늦게 등단하여 2011년 작고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현역 작가'의 자리를 지켰던 박완서는 15편의 장편소설과 15권 분량의 단편소설 등을 통해 글자 그대로 “한국사회의 사회 풍속을 일별할 수 있을 만큼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거니와, 박완서 소설은 크게 한국전쟁기의 체험을 근간으로 한 작품,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여성들을 다룬 작품”, “1960~1970년대의 개발 독재와 그로 인해 물신화된 사회 풍속이나 세대를 다룬 작품”, “나이가 들어가는 작가의 분

신인 듯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노년 소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작품 분류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박완서 문학 연구의 경향과도 조응하고 있는바, 그 결과 전쟁 체험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형상화 혹은 물질만능의 사회현실 및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에 주목한 연구들로부터 여성주의적 관점과 생명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향의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sup>2)</sup>

이처럼 박완서 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신여성의 이상과 모녀관계를 다룬 「말뚝1」이 분단과 모자관계를 다룬 「말뚝2」보다 현격하게 치진 비평적 관심을 받아온 것은 우리의 여성문제가 ‘분단 체제’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은,<sup>3)</sup> 조금 과장되게 해석하면 여성문제를 분단문제에 종속시키는 관점이 낡은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읽을 수 있거니와, 박완서 소설이 제시하는 주제의식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6·25와 분단이 박완서 문학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가족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을 내면화해야 했던 여성 혹은 중산층 주부로서의 체험 또한 박완서 문학의 근본적인 자질임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sup>4)</sup>

박완서 소설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전쟁에 대한 기억의 핵심에 오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놓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가 스스로 “나의 초기의 작품, 그중에서도 특히 6·25를 다룬 일련의 작품들은 오빠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 같은 작품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니와,<sup>5)</sup> 전쟁 체험과 그 체험의 중핵인 오빠의

1) 이선미, 「한 길 사람 속을 파헤치는 소설-분단/냉전 문화와 마음의 흔적」, 『실천문학』, 2011. 봄, 268쪽.

2) 박완서 소설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는 김선미, 「박완서 장편소설의 아버지 극복 과정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1~9쪽 참조.

3) 최경희, 「〈엄마의 말뚝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9, 1996, 123쪽.

4)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분단의 시대경험과 소설의 형식』, 깊은샘, 2004, 23쪽.

죽음을 끊임없이 다시 쓰는 작업은 재현을 거부하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치유적 글쓰기로서의 트라우마 서사(trumatic narrative)라는 측면에서 박완서 소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sup>5)</sup>

본고 역시 오빠의 죽음에 주목하고는 있으나 오빠의 죽음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쓰는 행위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오빠의 죽음 자체가 갖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완서 소설에서 오빠의 위치는 상징적 동일시의 모델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러한 오빠의 죽음이 주체에게 상실감을 넘어 일종의 죄의식을 유발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6·25를 다룬 다른 작가들의 소설과 박완서 소설을 비교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 2. 상실에 대한 주체적 반응으로서의 애도

여러 차례 지적된 대로 등단작 「나목」으로부터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이르기까지 6·25와 관련된 박완서 소설에서는 '6·25 전사하의 오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형상화된다. 작품에 따라 인물 설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좌익운동 경력이 있는 보도연맹원이었으며 의용군에 징집되었다 탈출한 후 갑작스런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죽은 오빠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희생자라는 점에서 6·25의 비극을 대변하는 인물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완서 소설의 핵심

5)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 2002, 23쪽.

6) 이런 측면에 주목한 경우로는 김은하, 「완료된 전쟁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실천문학』, 2001. 여름;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박완서의 전쟁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 2002;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기억으로 발언하기」, 『상허학보』 12, 2004; 이경재, 「박완서 소설의 오빠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32, 2011 참조.

주체가 오빠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살아남은 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삼켰으니까. 나는 망령들을 내 내부에 가뒀으니까. 나의 망령들은 언젠가는 토해내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체증이 되어 내 내부의 한가운데에 가로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 나는 늘 두 죽음을 억울하고 원통한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그 생각조차 바뀌어갔다. 정말로 억울한 것은 죽은 그들이 아니라 그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나일지도 모른다 싶었다. (...) 나는 이때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나도 곡을 하리라, 나도 자유로워지리라 마음먹었다. 나의 곡의 방법이란 우선 숨겼던 것을 털어놓는 일이었다.<sup>7)</sup>

등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 「부처님 근처」에 이미 “죽은 그들”과 “그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나”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자의식이 명료하게 밝혀져 있거니와, 이는 작가나 혹은 특정한 개인에게뿐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며,<sup>8)</sup> 또한 그것이 상실감에 대한 주체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심리학(정신분석)적으로 애도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sup>9)</sup> 그런데 그 상실감(슬픔)을 전쟁의 탓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주체가 감당해야 할 애도의 몫은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나무」에서 옥희도를 만난 첫날 이경이 느꼈던 불쾌감은 그 역시 많은 사람들처럼 모든 상실을 전쟁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의 다음 이야기는 들으나마나 뻘하다. 이복이 고향이구, 거기선 잘살았

7) 박완서,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06, 110~111쪽.

8) 이와 관련하여 이경재는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오빠의 삶이 “한국전쟁 당시 일반 민초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한 전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경재, 앞의 글, 368쪽).

9) S.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3.

구, 암 그때야 설마 이랬을라구…… 그때가 좋았지, 이런 투로 시작되는 부분하고도 길고긴 뉘두리를 난 얼마나 주워들었던가. 가끔 어머니가 푸듯이 뇌는 소리, 또 말 많은 환쟁이들이 입에 거품을 뿜어가며 겨루는 소리, 청소부 이줌마들에서 잡역부들에 이르기까지 썩들은 사람들의 그 허망한 뉘두리(그때야 이렇지는 않았지…… 좋았지 좋았구 말구). 과거에 대한 망상은 미래에 대한 망상보다 듣기에 구질구질하고 때로는 처참하게조차 느껴져 끝내 들어줄 수 있는 참을성이 나에게겐 없었다.<sup>10)</sup>

그러나 이경의 오해와 달리 옥희도는 “아주 황량한 풍경의 일각 같은 것”을 품고 있으며 “자기 세계만을 집착”하고 있기조차 하다. “그는 판사람과 다르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는 이경은 옥희도와 동질감을 느낀다. 그가 판사람과 다른 이유는 선전(鮮展)에 입선한 진짜 화가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가 애도의 과제를 짊어진 주체인 때문일 것이다. “구질구질하고 때로는 처참하게조차 느껴”지는 “과거에 대한 망상”은 상실한 어떤 대상에 대한 주체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전쟁이 어떤 상실의 원인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고, 또한 그러한 상실을 경험한 주체가 잃어버린 대상과 자신을 쉽게 분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이는 것 역시 일반적인 현상이다.<sup>11)</sup> 따라서 “그때야 이렇지는 않았지”라는 “허망한 뉘두리”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뉘두리 이상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상실을 외부의 타자 원인으로 환원하는 것 이상의 자기 탐구가 필요하다.

전쟁이 개인의 운명을 바꾸었느니, 전쟁이 기성 질서와 생활 감정을 어쨌느니, 전쟁이 무엇을 무엇했느니, 그래 전쟁이 없었다면 네가 운동의 네 번째 법칙을 발견할 것을 못 했단 말인가. 전쟁통에 그만 배울 걸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머리를 굽는 친구, 전쟁에 그만 깡그리 가산을 날리고 이러면서

10) 박완서, 『나무』, 세계사, 2002, 28~29쪽.

11) S. 프로이트, 앞의 글, 245~246쪽.

소주잔을 비우는 빵장수, 전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치도 않은 피해망상을 실습해 보는 갈보의 센터멘틀리즘, 거짓의 무리들이여 열세 번이나 지옥으로 가라. (...) 전쟁은 게으른 자와 음탕한 자들에게만 평계를 주었다.<sup>12)</sup>

주체의 상실감을 전쟁 때문으로 돌리는 태도를 “피해망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적시하는 최인훈의 첫 장편 「가면고」에서 전후의 상실감 극복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 역시 전쟁 탓 하지 않거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나목」과 「가면고」를 작가가 속한 세대의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20세 전후에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자신의 상태를 전쟁이라는 타자 원인의 결과로 환원하는 데 일종의 거부의를 공유하고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간단히 전쟁이라는 원인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목」의 이경은 “나는 지금 의사이고도 환자인 모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가면고」의 독고준은 심령학회원들에 의해 전쟁을 체험한 젊은이의 보상의식의 케이스라는 진단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 역시 전후의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 병들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나목」의 이경은(「가면고」의 독고준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때야 이렇지는 않았지”라는 식의 뉘그러를 통해 애매하게 제시되는 그 상실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과제와 대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사실, 이경 역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상실한 대상의 정체를 처음부터 분명히 알지는 못했으며 심지어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서사가 진행될수록 일종의 자기 분석을 통해 그 대상의 정체에 다가간다. 지극히 자명한 말이지만, 어떤 대상의 상실을 애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3)</sup> 이를 위한 자기 진단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6·25에 대한 진단으

12) 최인훈, 「가면고」, 『크리스마스 캐럴/가면고』, 문학과지성사, 1993, 164쪽.

13) S. 프로이트, 앞의 글, 244쪽.

로까지 발전하는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현상일 것이다.

### 3. 오빠의 상실이 지닌 상징적 의미

6·25와 관련된 박완서 소설에서 오빠라는 존재는 상실된 대상의 대표 자로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나”, 곧 오빠의 상실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에 비해 전쟁 중에 죽은 오빠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소설(『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인용자)은 모녀의 대결의식으로 일관된 것이며 긴장력의 근거도 이 대결의식에 수렴되는 것. 그 대결의 매개항이 외아들이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오빠였던 것. 그 오빠라는 자의 우유부단성이란, 일제 말기에 결혼하기, 결핵병의 애인을 병원 입원시키기 등으로 표상되었던 것. 좌우간 이 오빠라는, 참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변수(인간사의 핵심)에 대한 논의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엄마인 기숙 여사와 인간 박완서와의 대결에 있었던 것.<sup>14)</sup>

박완서 소설에서 모녀의 갈등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뚫고 나가는 역척 모성의 생명력의 이중성과 그러한 어머니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과 이해의 모순에 찬 운동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딸의 세계”라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동시에,<sup>15)</sup> “근대라는 시기를 나름대로 문제의 시기로 보면서 동시에 그러한 근대를 숭상하면서도 배반하는 ‘엄마’를 구체적인 시대적·계급적·문화적 조건을 지닌 한계 있는 한 여성으로

14) 김윤식, '박완서론-기억과 묘사', 『작가와와 대화』, 문학동네, 1996, 51쪽.

15)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역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1994. 겨울, 334쪽.



인정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sup>16)</sup> 모녀의 갈등에 주목하는 것은 모성성과 근대성을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의 여성성을 검토하려는 의도와도 통하거니와 이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가족사의 비극을 중심으로 박완서의 6·25 소설에 접근하는 기존 관점의 한계를 겨냥하고 있다.<sup>17)</sup> 그런데 여기서 오빠의 존재는, 위의 인용문의 표현대로 모녀의 갈등을 촉발하고 모습을 감추는 사라지는 매개자로 간주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빠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재하는 자리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딸에게는 엄마보다 오빠가 보다 중요한 동일시의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송도 거리에서의 엄마의 당당함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되레 나더러 닳기를 바라는 본보기처럼 보였다”와 같이 그려지는 엄마는 어딘지 모순된 요소들이 착종되어 있으며,<sup>18)</sup> 위에서 언급한 모녀의 갈등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일시의 대상으로서의 엄마의 위상이 이처럼 양가적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그에 비해 “오빠인 동시에 아버지였고 우상”으로 묘사되는 오빠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주체에게 일관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sup>19)</sup>

나는 처음으로 오빠를 만난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묘한 긍지를 느꼈다. 나아말로 무엇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속물의 세계에서 별안간 우뚝 솟은 어떤 정신의 높이를 본 것 같은 환각이었다. 그런 건 방진 느낌은 그 무렵 왕성해진 독서 체험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sup>20)</sup>

동일시의 모델로서의 아버지는 경험적·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상징적

16) 최경희, 앞의 글, 126쪽.

17) 임규찬, '분단체제와 박완서 문학',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114쪽.

18)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1995, 43쪽.

19)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22쪽.

20)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31쪽.

법의 작인이다.<sup>21)</sup> 위의 인용문에서 “전형적인 속물의 세계”와 “우뚝 솟은 어떤 정신의 높이”로 표현되는 두 개의 아버지 형상에서 동일시의 모델은 후자이며 박완서 소설에서 그 자리는 오빠에게 위임된다. 사적 이해관계에 지배되는 경험적 아버지와 달리 상징적 아버지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이런 점에서 후자는 책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진리와 위상을 공유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오빠의 상징적 권위에 대한 자각과 독서 체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보편적 가치 혹은 진리가 현실과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갈등은 책과 현실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김현은 최인훈의 독서체험과 관련하여 “세련된 사회에서는 책과 현실은 아주 희귀한 예를 제외하면 거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변혁기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추상적 진리와 그것으로 인한 금기 체계가 이미 그 사회에 알맞지 않은 진리를 흔히 말하는 책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22)</sup> 책과 현실의 갈등은 아버지의 두 형상, 곧 상징적 아버지와 경험적 아버지 간의 갈등과 등가이다. “우뚝 솟은 어떤 정신의 높이”를 지탱함으로써 동일시의 모델로 기능해야 할 아버지가 한낱 “전형적인 속물”로 밝혀질 때 그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이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 역시 최인훈의 「광장」에서 찾을 수 있다.<sup>23)</sup>

21) A. 주판치치, 『실재의 윤리』,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004, 299쪽; S. 지젝,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005, 501쪽.

22) 김현, 「최인훈의 정치학」,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348쪽.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회색인」에는 주인공이 일본어를 모르는 엄마 곁에서 공부와 무관한 책을 읽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엄마를 속이고 있는 데서 ‘나’는 쾌감을, 독고준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차이이다.

23) 경험적·현실적 존재로서의 오빠와 상징적 동일시의 모델로서의 오빠 간에도 당연히 불일치가 존재할 것인바, 실제로 해방 이후 전쟁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사회 변혁기에 오빠의 상징적 권위는 거의 완전히 붕괴된다. 이에 대해 신수정은 오빠를 상징적 권위를 지닌 이상적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일종의 미화이며, 이는 “아름다운 인간에게 불어닥친 세계의 폭력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전략적인 기억의 산물”이라고 이해한다(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박완서론」,

「저희들에게겐 좋은 아버지였어요, 국고금을 덜컥한 정치인을 아버지로 가진 인테리 영양의 술회가 풍기는 수수께끼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오 좋은 아버지, 나쁜 인민의 공복, 개인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밀실만 풍성하고 광장은 사멸했습니다. (...) 좋은 아버지, 불란서로 유학 보내준 좋은 아버지, 청렴한 교사를 목 자르는 나쁜 시학관(視學官), 그게 같은 인물이라는 이 엄청난 역설. 아무도 광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에 혁명이 있단 말인가. 일류 комму니스트의 집안에 중류 부르조아의 그것 같은 차분한 평화가 도사리고 있는 바에야 혁명의 청신한 흥분이 어디 있단 말일까. (...) 밖에 나가서 아버지라는 이름에 합당치 않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나이가 자기 아내와 장성한 자녀에게 보이는 양보,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죄를 밖에서 범했다는 건가. 혁명을 판다는 죄, 이상과 현실을 바꾸면서 짐짓 살아가는 죄, 그걸 스스로 모를 리 없는 아버지가 계면 짚어서 하는 태도일거다.<sup>24)</sup>

해방공간의 나라 만들기 서사를 다루는 「광장」은 남한에서 단독선거가 실시되던 1948년 5월 무렵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대남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귀환함으로써 진짜 아버지를 찾아 윤희하는 이명준의 가족 로맨스와 접속한다.<sup>25)</sup> 광장은 사멸하고 밀실만 풍성한 남한은 사적으로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공적으로는 “나쁜 인민의 공복”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그는 경험적 차원에서는 좋은 아버지일 수 있으나 상징적 권위를 지탱할 수는 없다. 한편, 상징적 권위를 가진 “반일투사이며 이름 있는 комму니스트”로 상상된 평양의 아버지 역시 밖에서는 혁명을 팔고 집에서는

『소설과 사상』, 1997. 봄, 23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서 발현되었던 상징적 권위 자체가 무화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상징적 권위가 단지 과거를 이상화하기 위한 전략에 봉사하는 것만도 아니다.

24) 최인훈, '광장', 『새벽』, 1960.11, 256, 274쪽.

25) 이수형, '<광장>에 나타난 해방공간의 나라 만들기와 가족 로맨스', 『현대소설연구』 38, 2008.

부르주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짜일 뿐이며, 따라서 “아버지라는 이름에 합당치 않은” 가짜 아버지에 의해 진행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 역시 가짜 혁명일 뿐이다. 전쟁이 나자 이명준은 “인민의 영웅”으로 재탄생하기를 꿈꾼다. 이때 탄생은 비유가 아니라 가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혹은 아버지 없는 존재로 “스스로 출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좌우대립이 극심한 해방공간에서의 체제 선택(이데올로기적 동일시)의 문제가 경험적 아버지와 상징적 아버지 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은 박완서 소설에서의 오빠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오빠는 유년기부터 여러 면에서 ‘나’의 동일시 모델이었지만,<sup>26)</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적인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동일시이다.

나는 그때 그 혼란을 좌익과 우익, 진보와 반동의 대립이라는 이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 들었고, 내가 박수 치고 역성들어 줘야 할 편은 좌익이라는 생각에 망설임이 없었다. (...) 오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었고 용모가 준수하고 말수가 적고 우애가 깊었다. 게다가 장손이었으니까 자연히 집안에서 떠받들어졌다. 이런 오빠는 나에게 큰 백이었을 뿐 아니라 무조건 추종하고 싶은 우상이었다. (...) 숙부들을 위시해 숙물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우리 집안 내에서 유일하게 정신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빠의 높은 생각을 나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과 어떤 것이든 이해하고 흉내 내고 싶은 마음이 감지한 게 오빠의 사상의 빛깔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빠가 사들인 책이 맨 그런 책이었으므로 그 중 쉬운 것만 빼다 읽어도 감화받기에 충분했다.<sup>27)</sup>

해방공간의 좌우 대립 중에, 또 전쟁 초기에 ‘나’가 “하필 좌익이었다는 건 오빠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말하자면, 동일시의 대상으로서 사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적 이데올로기가 요청되었으며, 그것을 오빠에게서

26) 최경희, 「박완서 문학의 젠더」, 『박완서 문학 길찾기』, 181~188쪽.

27)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97쪽.

찾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오빠가 죄의식이었던 것이다. 물론 「광장」의 이명준과 비교할 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나’의 구별은 훨씬 덜 강박적인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는 현저동 출신으로 빈민들 편에 서야겠다는 순진한 정의감 때문에 쉽게 공산주의 사상에 공감한 오빠가 다른 한편으로는 빈민들이 콩깍묵도 못 먹을 때 동생을 위해 양식을 사 먹이고 폐병을 앓는 애인을 특실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나’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 이해한다. ‘나’는 또한 일제 말기에 자신은 징용을 피했으면서도 남 걱정 하다 자기까지 위태롭게 하려는 오빠가 “딱하고 유치해 보”인다고 조소하며, 노무부장인 숙부의 치사한 특권에 빌붙어 쌀밥을 먹으면서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도 얼핏 보기에는 정의감 같지만 실은 도피였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한다.

그러나 오빠의 상징적 권위 역시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1949년 무렵 죄의식이 월북 또는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보도연맹에 가입해 전향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오빠가 후자를 택했을 때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취중일망정 오빠는 전에 없이 유치하고 졸렬하게 굴었다. 엉엉 소리 내어 울면서 마치 엄마 때문에 죄의식운동에서 발을 빼고 엄마 보란 듯이 보도연맹에도 가입한 것처럼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렸다. (...) 그 후에도 엄마는 두고두고 오빠 몰래 그 일을 심란해했다. 오빠가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집요하게 극성을 떨 때하고는 단판으로 문득문득 후회하는 기색 이랄까 미련 같은 눈치까지 보인 적도 있었다. 자식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금하는 불온한 사상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식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 니만치 뭐가 위대한 일이라고 믿고 싶은, 가장 우리 엄마다운 이중성이었을까? 아니면 엄마도 임의로 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까?<sup>28)</sup>

오빠에 대한 반발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비해 「목마

28)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15쪽.

른 계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sup>29)</sup> 전쟁 전 오빠 열의 전향에 대해 “오빠의 목가적인 생활에의 안주에 심한 저항을 느끼고 있는 스스로를 어쩔 수 없”었던 진이는 “오빠의 흉내에서 벗어나 있어요. 난 결코 오빠처럼 변절이나 배반은 하지 않을 테니까”라고 노골적으로 반발한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이러니까. 새 세상이에요. 만세라도 불러야죠”라고 믿어 S대 민청에서 활동하며 당성 심사를 위한 자서전을 쓴다. “당이 원하는 자서전을, 당의 의도에 영합하는 자서전을, 아주 간명하고 그러고도 열렬하게 썼다. 오빠가 6·25 전부터 당원이었다는 것과 그의 영향이 컸다는 것까지…… 그녀의 표현은 거침없이 대담해진다. 그녀는 어제부터의 열의 모호한 태도를 경멸했고, 그런 파렴치는 바로 이렇게 야유해주는 게 체격이다 싶다.”

가짜 혁명가인 아버지에 반발하던 「광장」의 이명준이 전쟁을 만나 “인민의 영웅”이 되고자 했던 것과 오빠의 전향에 반발하던 진이가 전쟁을 만나 “바뀐 세상에 서슴없이 공감”하려 했던 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에 덜 강박적이었던 것만큼, 진이는 공산주의에 공감하는 동시에 “자유주의 근성이 농후한” 방관자이며 “냉엄한 생활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존중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화자 ‘나’가 “가장 우리 엄마다운 이중성”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의하면, 심지어는 엄마마저 “뭔가 위대한 일”의 숭고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소와 경멸, 때로는 노골적인 욕설과 적의를 아무리 받아도 진이는 오히려 미흡했다. 열이 끌려간 밤부터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의식의 표면으로 부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반발과 증오가 결코 동기간을 잃은 데서 비롯된 단순

29)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화자 ‘나’는 대체로 오빠의 전향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며, 엄마의 입을 빌려 간간히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그에 비해 「목마른 계절」에서는 공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열과 진 남매의 갈등이 보다 표면화된 다. 이 부분에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더 ‘자전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목마른 계절」이 더 ‘개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감이 아니라는 확증, 즉 많은 사람, 특히 당이 자기들 편이라고 믿고 있는 무산계급도 결코 공화국의 하늘 아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확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봐 두고 싶었다. 그녀는 또 열을 그렇게 되게끔 내버려두고 도와주지 못한 자기가 미워 견딜 수 없었다. 그 미움은 열무장수라든가 오이장수, 그밖에 식구들을 위한 힘에 겨운 노동, 또 못사람의 적의와 조소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쯤으로는 도저히 갚아질 것 같지 않게 절실하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못 배겼다.<sup>30)</sup>

공적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작한 민청 활동에 대한 의욕이 가짜 열광과 예찬이 계속되면서 점점 약화되어 감을 느끼던 ‘나’가 활동을 그만둔 결정적인 계기는 오빠가 의용군으로 끌려가게 된 사건이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나는 오빠가 의용군에 붙들려 간 걸 기화로 학교에 나가는 걸 그만두었다. 오빠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냥 지쳐 나자빠진 거였다”라고 짧게 서술된 부분이 이번에도 「목마른 계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공산주의에 대한 반발과 증오가 결코 동기간을 잃은 데서 비롯된 단순한 사감이 아니라는 확증”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나’의 거부가 단지 사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도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sup>31)</sup> 둘째, 그보다 더 주목을 끄는 것은 오빠에 대한 부채감과

30)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03, 120쪽.

31) 아버지와 그 대리자로서의 오빠의 부채를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을 분석하는 김선미의 「박완서 장편소설의 아버지 극복 과정 연구」는 본고의 주제의식과 상통하는 점이 있으나, 경험적/상징적 존재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가령, 오빠라는 대리자를 통해 아버지의 경험적 형상과 대립하던 ‘나’가 오빠의 징집을 계기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아버지 부채를 극복하고 있다는 논리는 아버지의 위상을 단지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김선미, 앞의 글, 59~60쪽). 이러한 논리는 자신이 생계를 떠맡은 전쟁 중에, 그리고 생계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중산층 가정에 편입된 이후에도 ‘나’가 생계의 반대편에 있는 상징적 가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그로 인한 자기비난이나 자기처벌의식 등, 죄의식에 포함될 수 있는 일련의 태도들이 진이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 4. 상실에 대한 죄의식, 상실과 함께 머물기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죄의식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가령, 야스퍼스는 전쟁 중의 독일인의 죄에 대해 논하면서 타인들이 죽은 곳에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자신이 ‘아직 살아 있음의 죄’(guilty of being still alive)를 지었다고 느끼는 것을 죄의식의 궁극적인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2)</sup>

손창섭 소설로는 드물게 전쟁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희생」에서도 그러한 죄의식의 전형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한 학교에 근무하는 재성과 수옥은 혼담이 오가던 중 전쟁을 맞는다. 서울 수복 직전, 밭에 숨어 있던 동네 주민들 사이로 떨어진 포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수옥의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켜보던 재성은 “같이 죽지 못하는 것이 큰 죄” 같고 또 그것이 “수옥에게 대한 배신”처럼 여겨져 강렬한 죄의식을 느낀다. 결말에 이르러 폐잔병으로 숨어든 옛 체자를 피신시켰다가 미군에게 체포되어 곧 닥쳐올 운명을 각오하는 재성은 전날 죽은 수옥을 떠올리며 “지금 같으면 능히 따라 죽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수옥의 죽음에 죄의식을 가졌던 재성이 자기 역시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 어떤 안도를 느끼는 것은 그 죽음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sup>33)</sup>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32) K. Jaspers, *The Question of German Guilt*, trans. by E. B. Ashton, Fordham University Press, 2001, p.65. 이는 세상의 모든 잘못과 부정에 대해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이상학적’ 죄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무지(無知)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적’ 죄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전후의 죄의식, 다시 말해 전쟁 후에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은 1960년대 소설에서도 지속적으로 변주된다. 최인훈의 「우상의 집」은 「회색인」 등에서 반복되는 방공호 장면을 기본 골격으로 한 죄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가르쳐준 창조적 거짓말은 병적 이구 정신병원감”이라는 주인공의 반문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의 심리적 실체로서의 죄의식을 적시한다. 또한, 김승옥의 「건」은 빨치산과 방위대의 전투로 “찬란한 왕궁”을 상실한 소년이 느낀 죄의식이 위악적인 행동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박완서의 등단작 「나목」의 결말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를 비벼댈 수는 있으나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어린 나목들임을 다시 확인” 함으로써 “사람살이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포착하고 있다거나,<sup>34)</sup>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은 타당할 것이다.<sup>35)</sup> 그런데 「나목」을 이경의 죄의식의 서사로 읽는다면 조금 다른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sup>36)</sup> “나는 새삼 나를 충충이 얽맨 사슬을 느꼈다. 그 사슬의 시초가 궁금했다. 나는 가끔 그 사슬의 시초로의 소급을 시도하다가 우습게도 좌절당하고 마는데, (……) 난 그 시초를 결코 망각한 게 아니라 교묘하게 피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라는 고백이 명시하듯,

33) 제목 ‘희생’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처벌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이다. 재성이 수옥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처벌은 손창섭의 전후소설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의 주인공들이 무력한 상태에서 자기모멸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잉여인간」에서 만인을 위해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인(聖人)과 같은 인물의 창조로 이어지기도 한다(이수형, '195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41, 2010).

34) 유중호, 「불가능한 행복의 질서」, 『박완서』, 서강대 출판부, 1998, 93쪽.

35) 소영현, 「복수의 글쓰기, 혹은 쓰기를 통해 살기」, 『나목』, 세계사, 2002, 300쪽.

36) 6·25와 관련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역시 수지의 죄의식이 서사를 추동하는 동력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 잃어버린 동생은 실은 내가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죄의식적 상상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소설이 아니라 로맨스에 가깝다. 이러한 죄의식의 로맨스는 ‘우리 부모가 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오목이의 가족 로맨스와 짝을 이룬다.

오빠들의 폭사가 행랑채에 숨도록 한 자신 때문이라는 죄의식이 이경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 죄의식은 서사 자체에서 억압된 부분이기도 하다. 1951년 겨울부터 시작되는 「나목」의 서사는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시간 순서를 따르지만,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봄부터 서울을 재수복한 1951년 봄까지의 시기를 다룬 14장만 유독 소급제시의 형태로 서술되고 있다. 이때의 핵심적인 사건은 물론 오빠들의 죽음이다.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 집에만 남겨놓으셨노”라는 어머니의 탄식을 접한 후, 이경은 “살아 있다는 것이 송구스러워” 어머니를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대면할 때면 “나는 웅얼웅얼 변명 비슷한 소리를 했다. 곧 또 난리가 날 거라든가 또 난리가 나면 이번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라든가. 나는 이렇게 내가 살아 있다는 게 민망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몇 달 후 1·4 후퇴를 맞아서도 “어머니의 부연 눈이 한결 집요하게 나를 쫓고 있”는 것 같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던 이경은 큰집의 권유를 못 이기는 척 부산으로 피난을 떠난다. “곧 또 난리가 날 거래요 라는 내 말을 통해 이번 난리가 나면 난들 살아남겠느냐, 나도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 셈이었는데, 난리를 피해 도망와 있으니 무슨 낯으로 어머니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오빠들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라는 처벌을 상상했던 이경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서 14장을 억압한 것이다.

오빠들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은, 손창섭의 「희생」에서 본 바와 같이 전쟁을 겪고도 살아남은 자가 갖는 죄의식의 전형적인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나목」의 경우 내면의 고소인(초자아)과 피고(자아)의 관계가 어머니와 이경의 관계로 외부화·인격화되어 제시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37)</sup> 이때의 죄의식은 단순히는 윤리적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책, 자책 등과 유사한 것이다. “오빠들을 통해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였고 이해하

37) S. 프로이트, 「자아와 이드」,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395~396쪽.

려 들었”던 이경이 동일시의 모델로서의 오빠들의 죽음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은 당연하며, 아마도 어머니의 집요한 시선이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 자책의 심정을 가졌을 것이다(물론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더 빨리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경의 상태를 걱정하던 사촌 오빠가 “넌 우선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은 이 음산한 고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라고 조언했을 때 이를 거부했던 이경은 과거 회상에 이은 15장에서 “나 때문이었을까?”라는 자문을 반복한다. 그리하여 억압되었던 “오빠들의 죽음이 꼭 나 때문일 것 같은 가책”과 대면한 끝에 “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전쟁 때문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럴 팔자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 허물을 딴 핑계들과 더불어 나누어 갖기를, 나아가서는 내가 지은 허물만큼 그동안 나도 충분히 괴로웠다고 믿고 싶었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애도를 끝내라는 사촌 오빠의 충고를 거절했던 이경은 일종의 자기 분석을 거쳐 이제 스스로 애도를 종결하려 한다. 그런데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던 「나무」의 죄의식의 서사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연장된다. 어머니의 죽음이 급성폐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는 ‘거짓말’이 사실로 유통되자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조작한 사건에 같히고” 말기 때문이다.<sup>38)</sup> 「토템과 터부」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아들의 죄의식을 강화하는 사례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재형성된 죄의식 때문에 이경의 애도는 끝날 수 없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끝나지 않는 애도는 우울증을 형성하며, 이 우울증적 주체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자아를 구성하는 일부를 상실했다고 느끼게 된다.<sup>39)</sup> 만약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상실했다면, 그 빈자리를 다른

38) 이 거짓말 역시 무지 혹은 무의식적 앎(unknown knows)일 것이다.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죄의식이 연장된다는 것은, 이경이 의식적인 판단과는 반대로 무의식적으로는 여전히 죄의식을 벗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애도를 끝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9) 우울증적 주체는 대상 리비도 집중을 나르시시즘적 자아 동일시로 전환하며, 그 결과 상실된 대상은 주체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아를 구성하는 일부로 존

대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애도 역시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일부를 상실했다면, 그것은 대상의 상실인 동시에 주체 자신의 상실이기도 하다.<sup>40)</sup> 그래서 외부(의 대상)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우울증적 주체는 상실과 함께 하며 애도를 끝내지 않는다.

박완서 소설에서 그 상실은 일차적으로는 오빠의 죽음이다. 그런데 그 상실은 단지 오빠의 상실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실이기도 하다. 오빠가 의용군에 끌려가던 무렵 공산주의를 버린 ‘나’는 다시 한 번 오빠와 동일시한다. 이때의 동일시는 오빠를 흠 없는 이상으로 삼던 시절의 동일시와는 다르다.

빨갱이와 흰둥이의 죽고 죽이는 일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색은 없는 것일까? (...) 주위의 친한 이들은 싫건 좋건 간에 모두 둘 중 하나의 색을 선명하게 선택하는 일을 이미 끝내고 있지 않은가? 민준식도 민도 화진도. 그리고 열도?

생각이 오빠 열에게 미치자 진이는 그녀의 가장 깊숙한 곳이 까진 피부처럼 쓰러움을 느낀다. 그녀는 동기간끼리의 직감으로 자기의 방향과 흡사한 또 하나의 방향을 열이 하고 있음을 안다.<sup>41)</sup>

‘나’는 오빠의 전향에 대해 순진한 정의감만 있을 뿐 “행동을 하기엔 너무도 허약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냉소한 바 있지만, 관념적으로만 공산주의에 동조했을 뿐 현실에서는 한 달도 못가 그것을 포기해 버리고 만 ‘나’ 역시 “허약하고 사치스러운”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은 명백하다. 그런 ‘나’가 뒤늦게 다시 한 번 오빠와 동일시하려

재한다(조현순, 「애도와 우울증」,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59쪽).

40) J. 버틀러, 『불확실한 삶-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경성대 출판부, 2008, 47~49쪽.

41) 박완서, 『목마른 계절』, 181~182쪽.

했다면, 그것은 좌우 대립에서 이도 저도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처 입은 자의 이미지와의 동일시일 것이다.

그러나 혹독한 시대는 자신의 일부였던 것을 상실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죽을 고비를 넘어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이미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게 내 식구 생각만 하겠노라”는 말을 입에 단, “얼굴을 잃고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의 오빠보다는 유사성을 발견하기가 쉬울” 만큼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sup>42)</sup> 그렇게 “서서히 사라져 간”다. “딴 사람도 아닌 오빠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배신감을 느끼지만, ‘나’ 역시 “처자식의 먹이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 선불리 참여하지도 저항하지도 않는 남자”와의 결혼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 모녀는 지금까지도 오빠가 빨갱이였는지, 환둥이였는지, 아예 그런 사상 문제엔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관심도 없었는지, 그것조차 분명히 알고 있지를 못하다. 다만 어머니는 아들 치다꺼리만 했지 한 번도 아들이 벌어오는 밥을 못 얻어잡춰 본 게 가슴 깊이 맺힌 한이어서 아무쪼록 오래 사셔서 하루라도 손자가 벌어오는 밥을 얻어잡춰 보는 게 소원이시다. 손자가 좋은 학교 나와서 착실한 직장을 가지고 결혼해서 일요일이면 처자식 데리고 카메라 메고 놀러 나가고 당신은 집을 봐 주는 게 평생소원이시다.<sup>43)</sup>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상실에 대한 애도는 끝나지 않는다. 그 상실은 오빠의 여윌이며, 더 나아가서는 일찍이 오빠에게서 보았던, 그리고 ‘나’ 또한 동일시했던, 따라서 ‘나’의 일부이기도 했던 “속물의 세계에서 별안간 우뚝 솟은 어떤 정신의 높이”의 상실이다. 애도의 종결이 상실한 것의

42)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 1995, 38~39쪽.

43)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06, 361쪽.

대체가능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나’의 상실이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애도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불이 붙은 사내아이, 착한 아내, 찌개 끓는 화로, 커튼 늘어진 창”이 희망의 전부인 남편과 결혼한 ‘나’는 언제까지라도 그가 낫설 것이고, 또 예전에 고가(古家)는 허물어졌지만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처자식만 아는 남편, 많은 아이들.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않”고 “사는 게 매가리가 없고 시들시들하고 구질구질하고 답답하고 넉더리” 날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오빠의 아들에게까지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라고 충고하는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박완서의 소설이 “사회에 선불리 참여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한 주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세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지만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중적인 절망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sup>44)</sup> 그런데 그 이중구속 상태에서 속물들의 세계에 투항하는, 보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가치의 상실 자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으므로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죄스러워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상실감과 함께 머물며 애도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맺음말

2010년 2월 자전소설로 발표된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를 제외하면 마지막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빨갱이 바이러스」는 서두에서

44) 류보선, 「개념에의 저항과 차이의 발견」,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433쪽.

언급했던 박완서 소설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네 명의 화자의 입을 통해 노년의 삶과 여성의 삶, 도시인들의 이기주의, 그리고 6·25와 분단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6·25와 분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과 우연히 하룻밤을 함께 지내면서 고백 게임을 벌이고 그 고백을 통해 각자의 죄의식을 떨어버림으로써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을 줄 안 걸 말해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도 살 것 같다는 데 동의”하며 일종의 애도를 종결하고 있는 「빨갱이 바이러스」의 서사 안에서 유독 ‘나’만이 그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말은 주목할 만하다.

해방 직후 삼팔선 이북에 편입되었던 ‘나’의 고향은 6·25 중에 인민군 세상이 되었다가 국군 세상이 되었다가를 반복하다 마침내 남한에 속한 땅이 되어 휴전을 맞는다. 일제 때 서울에서 전문학교를 나왔고 지주 집안으로 몰려 다른 가족들이 전전공공할 때도 “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했”으며 전쟁이 나자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삼촌은 휴전과 함께 사라지고 없다.

나는 삼촌을 좋아했는데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삼촌에 대해 입에 담지 않았고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내가 삼촌을 좋아했다는 게 생 각만 해도 쓸쓸해지는 상처가 되었다. 삼촌에게선 우리 식구들에게는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옷자락에서 풍기는 냄새까지 향긋했고 무뚝뚝한 식구들에게는 없는, 연민을 숨기지 못하는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삼촌을 통해 막연히 동경하게 된 교양인의 냄새가 사라진 우리집은 어린 나에게 무지렁이들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sup>45)</sup>

오빠가 삼촌으로 바뀌었을 뿐,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다. 휴전 후 은밀히 집을 찾아왔던 삼촌이 아버지의 손에 죽어 마당에 암매장 되는 장면

45)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문학동네』, 2009. 가을, 237쪽.

이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어린 ‘나’의 상상에 불과한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죄의식은 삼촌이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삼촌의 상실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삼촌의 상실은 “우리 식구들(무지렁이)에게는 없는 분위기” 혹은 “전형적인 속물의 세계에서 별안간 우뚝 솟은 어떤 정신의 높이”의 상실이다. 또한, 그 정신적 높이의 상실은 단지 삼촌이 지향했던 가치의 상실인 것만이 아니라 “삼촌을 통해 막연히 동경하게 된”, 곧 삼촌과의 동일시를 통해 ‘나’ 역시도 지향했던(혹은 지향하려 했던) 가치의 상실이기도 하다.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나’는 그 상실을 죄스러워하고 그 상실과 함께 머물 수밖에 없다. 「빨갱이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실을 그 자체로 자신의 일부로 구성했으므로 결코 애도를 종결할 수 없는 주체의 사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상실에 대해 그만 슬퍼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재빨리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것이 단지 무기력이나 수동성, 체념을 낳는 것만이 아니라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과 공모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상실을 겪는 인간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면,<sup>46)</sup> 박완서 소설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46) J. 버틀러, 앞의 책, 59~60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1995.  
 \_\_\_\_\_,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 1995.  
 \_\_\_\_\_,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세계사, 2002.  
 \_\_\_\_\_, 『나무』, 세계사, 2002.  
 \_\_\_\_\_,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03.  
 \_\_\_\_\_,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06.  
 \_\_\_\_\_, 『빨갱이 바이러스』, 『문학동네』, 2009. 가을.  
 손창섭, 『비 오는 날』, 문학과지성사, 2005.  
 최인훈, 『광장』, 『새벽』, 1960.11.  
 \_\_\_\_\_, 『크리스마스 케털/가면고』, 문학과지성사, 1993.

### 2. 단행본 및 논문

-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역적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1994. 겨울, 332~350쪽.  
 김선미, 「박완서 장편소설의 아버지 극복 과정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59~60쪽.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박완서의 전쟁재현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 2002, 144~165쪽.  
 김윤식, 「박완서론-기억과 묘사」, 『작가와와 대화』, 문학동네, 1996, 33~53쪽.  
 김은하, 「완료된 전쟁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실천문학』, 2001. 여름, 258~272쪽.  
 김 현, 「최인훈의 정치학」,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347~352쪽.  
 류보선, 「개념에의 저항과 차이의 발견」,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

- 네, 2006, 423~463쪽.
- 소영현, 「복수의 글쓰기, 혹은 쓰기를 통해 살기」, 『나무』, 세계사, 2002, 287~301쪽.
-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박완서론」, 『소설과 사상』, 1997. 봄, 227~246쪽.
- 유종호, 「불가능한 행복의 질서」, 『박완서』, 서강대출판부, 1998, 88~102쪽.
- 이경재, 「박완서 소설의 오빠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32, 2011, 363~392쪽.
-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분단의 시대경험과 소설의 형식』, 깊은샘, 2004, 23쪽.
- \_\_\_\_\_,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기억으로 발언하기」, 『상허학보』 12, 2004, 403~432쪽.
- \_\_\_\_\_, 「한 길 사람 속을 파헤치는 소설-분단/냉전 문화와 마음의 흔적」, 『실천문학』, 2011. 봄, 264~281쪽.
- 이수형, 「<광장>에 나타난 해방공간의 나라 만들기와 가족 로망스」, 『현대소설연구』 38, 2008, 269~291쪽.
- \_\_\_\_\_, 「195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41, 2010, 215~236쪽.
- 임규찬, 「분단체제와 박완서 문학」,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110~128쪽.
- 조현순, 「애도와 우울증」,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56~73쪽.
- 최경희, 「<엄마의 말뚝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화사연구』 9, 1996, 118~139쪽.
- \_\_\_\_\_, 「박완서 문학의 젠더」,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166~203쪽.
- Butler. J., 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출판부, 2008, 47~60쪽.
- Freud. S., 윤희기·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244~246쪽.

Jaspers. K., *The Question of German Guilt*, trans. by E. B. Ashton,  
Fordham University Press, 2001, p.65.

Zizek. S., 이성민 옮김,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2005, 501쪽.

Zupancic. A., 이성민 옮김,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b, 2004, 299쪽.

**【Abstract】**

A study on the mourning and sense of guilt in Park Wan-seo's works

Yi, Soo-hyung

The death of the heroine's brother is a typical and significant event in Park Wan-seo's works that describe the Korean War. The brother serves as the model of identification in Park's works. His death stirs the sense of guilt in the heroine. The father as the model of identification is not experiential but symbolic and the brother is delegated symbolic authority that can sustain universal values. There could be the inconsistency of the symbolic status with experiential one. The death of the brother means that the symbolic authority delegated him is disintegrated and universal values are lost. As a result, the heroine identified with her brother will lose symbolic values, too. The reason why she feels a sense of guilt for the brother's death and cannot resolve mourning for his death quickly is that she loses the most valuable thing of herself. To stay with the sense of loss and not to give way to resolve grieving make Park's works take a firm stand on violence.

Key words : mourning, sense of guilt, staying with loss, symbolic authority, identification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